

더 읽어 보면 좋을 책들

- **우리 시대 남성들이 가지는 두려움의 실체**
헤르만 에만. (남자의 심리학) 남자를 두렵게 하는 것들. 배진아 역. 해토, 2009.
- **현대 남성들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남자다움'의 가치**
로버트 블라이. (남자의 책) 무쇠 한스 이야기. 이희재 역.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5.
-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남자의 심리 문제**
데이비드 웨슬러. (내 남자를 위한) 관계의 심리학. 윤정기 역. 지식의 날개, 2008.
- **남자로 산다는 것의 '고통'보다 '근사함'에 대하여**
채정호. (채정호 교수의) 남자 수업. 스마트비즈니스, 2010.
- **21세기 남성들에 관한 인류학적 스케치**
폴 아케르만. Mr. 남성의 재탄생. 이정순 역. 사람의무늬, 2011.
- **남성들을 위한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법**
비요른 쥐프케. 남자 심리지도: 남자로 태어나 남자로 길러지고 남자로 산다는 것. 엄양선 역. 쌤앤파커스, 2010.
-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학적 연구로 파헤친 남자의 재발견**
한네 제만. 남자도 남자를 모른다. 김인순 역. 위즈덤하우스, 2011.
- **뇌과학으로 본 남성**
루안 브리젠딘.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 황혜숙 역. 리더스북, 2010.
- **대한민국 남성들의 존재의 의미**
김정운. 남자의 물건: 김정운이 제안하는 존재확인 의 문화심리학. 21세기북스, 2012.
- **침묵 속에 감춰진 남성들의 진짜 내면 들여다보기**
마이클 아디스. 보이지 않는 남자. 소대영 역. 열린세상, 2011.



남성

● 한 아이의 유년기를 통해 보는 한국 남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숲, 2003.



저자는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가 아들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가족 안에서 발달된 신분관계가 학교, 회사, 군대 등의 운영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권위주의와 자기애의 동굴에 갇혀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인 '동굴 속 황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분석한다. 한국 남자의 인성 형성 과정을 탐구한 책.

● 병적 유산을 극복하고 진정한 나와 만나다

테리 리얼. 남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안기순 역. Y브릭로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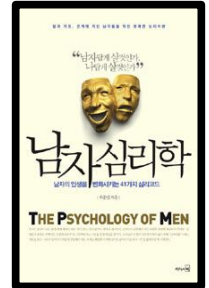


저자는 사회 통념상 고정된 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성의 고통, 그 중에서도 '비밀스럽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우울증'에 주목한다. 남자들은 우울증이 '사내답지 못한' 증상이라는 사회적 치욕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숨긴다. 저자는 남성이 자신의 고통과 용기 있게 만나고, 고통을 치유하며, 닫혀있던 관계를 열어젖힘으로써 자기학대와 우울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 남자답게 살 것인가, 나답게 살 것인가?

우종민. 남자심리학: 남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41가지 심리코드. 리더스북, 2009.

강요된 남자다움을 벗고 건강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제시하는 심리처방전. 저자는 일과 가정, 그리고 개인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남자다움'이라는 굴레에 갇힌 이들이 겪는 현실을 41가지로 구분하여, 감춰진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살펴보고 인간관계의 노하우부터 스트레스 관리법, 직장생활에서 현명하게 성공하기 위한 비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 자유롭게 건강한 남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스티브 비덜프.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 박미낭 역. 젠북, 2007.

저자는 남성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뒤틀린 남성의 삶'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먼저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엉클어진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동성 친구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남성의 삶'에 대한 탐색과 구체적인 조언이 담긴 책.

